

수필당선

# 넓은 갈색 통굽 스레빠의 아날로그

김미주(국어국문·06)



INJE  
인제문화상

**적** 막하리만큼 한가로운 주말의 늦은 오후. 느닷없이 핸드폰에서 울려오는 낭랑한 기계음이 오후 1시임을 듣고서야 나는 느지막이 굵뚱 몸을 들어 올려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다.

“계절도 바뀌었는데 오랜만에 가을 옷 쇼핑이나 해볼까...”  
여자에게 쇼핑만큼이나 흥분되고 즐거운 매력이 또 있을까. 나는 급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윽고 쉴 새 없이 마우스를 클릭하기 시작한다.

자취 생활 4년.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나름대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보니 내 모든 지출의 반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서다.

마시는 물이 떨어져도 클릭, 생필품이 바닥나도 클릭, 새 옷을 장만하고플 때도 역시 클릭. 클릭. 클릭 소리와 페이지 넘어가는 합주의 로딩이 짝을수록 장바구니는 부른다.

갈수록 간편해지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복잡한 이 사회의 구조 틈 속을 살아가다 보면, 그다지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평범히 사는데도 웬지 정신이 없다.

기억력은 늘 깜빡 깜빡 한 두 걸음씩 느리고, 보통 나의 머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에 발 빠르게 쫓아오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시간이 날 때 마다, 생각이 날 때 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 때 그 때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와서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 것. 그러면 하루나 이틀 뒤, 기다림보단 일상처럼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바쁜 택배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배달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고맙고도 간편한 인터넷의 기적 덕분에 나는 오늘 하루도 간단히 네모난 컴퓨터 앞에서 내 모든 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만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촉감도 냄새도 없는 네모난 기계에 내 모든 감각과 취향을 의지한 채 물건을 사들인 것이 말이다. 지갑 속 현금을 꺼내고 다시 거스름돈을 챙겨 받는 그 흔한 일상들과, 집어 들어 올려 요리 조리 살펴보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가 반박하며 주인과 입씨름을 하고, 한 나절을 발품 팔며 돌아다니다 어느 새 허기진 몸과 뱃속을 딱딱이 한 접시 먹으며 색색의 봉투들 속에 담겨있는 그 날의 기쁨들을 다시 열어 보며 수다를 떨었던 그 기억이 마치 아득히 먼 옛날의 일인 듯 느껴지는 이 새삼스러운 이질감에 기분이 묘해진다.

인터넷을 전혀 모르던 어린 시절. 나는 엄마(그 시절, 내게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 '엄마'였다.)와 쇼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쇼핑을 핑계로 엄마 손을 잡고 시장통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고 옷을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참 좋아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라는 든든한 가정의 자리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지만, 어머니와 나는 그 어느 집 모녀사이보다 단짝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그 시절, 나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기에 늘 한가로웠다.

그러하기에 모녀는, 매일 저녁 밥상 앞에 마주보고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살 것이 있든 없든 두 손 꼭 잡고 밖으로 나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던 시장과 시내를 돌아다녔다. 비록 무엇을 사는 날보다, 사지 않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 시절 나는 뭐가 그렇게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어머니에게 노상 질문을 해대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참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딸의 말을 단 하나도 흘리지 않으셨다. 내 모든 말을 새겨들었다가는 친구처럼 다정히, 그렇지만 풍부하고 섬세하게 내게 인생의 지식들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매일 저녁 좁은 시내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깔깔대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땐 초라한 지갑 속을 탈탈 털어 내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사주시기도 했다.

그 때의 낱아빠진 엄마의 갈색 통굽 스레빠와 나의 하얀색 세련된 브랜드 운동화가 내 기억 속에서 조금은 시리게 대비되었지만, 엄마와 딸은 그렇게 하염없이 걷고 또 걸으며 행복해 했었다.

가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의외의 순간에 당황할 때가 많다. 외계어를 섞어가며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때로는 욕인지 아닌지 모호한 말을 해대는 정도의 것은 워낙에 일상적이라 놀랍지도 않지만, 처음 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까지 모든 아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중학생은 그렇다 치고, 초등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최신기종의 휴대폰을 책상 옆에다 두고 수업 내내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웬지 낯설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다 있는 휴대폰인데 웬 오버액션이라는 식이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여지없이 당황의 순간은 온다.

“ 쌤, 쌤은 명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직 세 개밖에 없는데.”  
당황도 잠시, 또 다른 아이가 그 말에 총알처럼 쏘아붙인다.  
“어떤건데? 인터넷으로 샀제? 짹 주제에...”  
그 말에 발끈한 아이가 또 불같이 쏘아붙인다.

“프X다 가방이랑 버X리 남방이랑 구X 키홀더 있는데, 전부다 진땀이거든? 그 나 X키 신발 그게 더 짹 같은데?”

그러다가 순식간에 교실은 아이들의 명품 과시로 왁자지껄 해지고, 나는 아연실색하여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있었다.

나 역시 아직 철부지 학생이라 명품이 싫을 리는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구매욕구가 생길만큼 욕심이 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행처럼 번지는 한국의 명품 소비 풍조에 질려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이런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는 명품 브랜드 선호 경향에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잔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그 생각이 곧 그만두었다.

“선생님은 명품 하나도 없다. 물론 별로 관심도 없고... 난 몇 가지 중고가 브랜드를 더 좋아해. 그렇다고 해도 비싸서 큰 맘 먹고 꼭 사고 싶었던 것만 사는 편이고. 너희들은 명품 많이 아는구나? 너희가 말하는 버X리 같은 명품들은 40~50대 상위층 어른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디자인인데 한참이나 어린 너희들 눈에 그것들이 예뻐 보인다니 의외네.”

그냥 그렇게 한 마디 했을 뿐이다.

물론 학원에서 일을 한 것이 몇 달 되지 않았기에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잘 몰라서 생긴 나 혼자만의 '뒤늦은' 문화충격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문화라는 것은 변화되기 마련이고 신식은 반드시 구식이 된다. 그것이 문화든 가치관이든 유행이든 말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점점 필수화 되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서구의 많은 문화와 문물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엄청난 지식과 정보들이 인터넷이란 공간속에 기준 없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울에 그대로 비춰지고 흡수되고 있는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들의 행동들을 보고 있으니, 어리단 느낌 보다는 왠지 무섭다는 느낌이 더 들어버리고 말았다.

뭐랄까, 아이들만의 치기어린 순수함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요즘의 아이들은 얼마든지 말로 나를 이길 수 있고, 꽤나 담담하고 성숙한 말투로 나를 한 번에 무시할 수도 있다. 그들은 이미 풍부한 어른들의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나 역시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이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예리하며, 정직할 뿐.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 편에 몽글몽글 생겨나는 아쉬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의 초등학교생을 기르는 어머니들은 더 이상 넓은 갈색 통굽 스레빠를 신지 않는 모양이다. 그 대신 좀 더 세련되고 신식의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어머니, 아버지 구별이 없는 맞벌이식의 바쁜 업무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쇼핑 할 시간이 없더라도, 요즘의 어머니들은 그 대신 사랑의 확인 증표로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을 손에 쥐어준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들에게 명품과 값비싼 운동화를 사다주며, 사교육 치열한 한국의 교육 환경을 감안해, 아이들이 학교 공부 끝나면 곧장 학원에 가기를 바란다.

잘못된 것은 없다.

오히려 모두들 똑똑하게 현실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의 어릴 적 기억을 추억하는 순간이 올 때, 그 때 아이들은 과연 어떤 추억의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까?

그다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득문득 내 어릴 적 어머니와의 추억이 사무치게 그립고 애잔하다.

풍족하지 못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어 주었기에 부족한 것도 없었던 그 때 그 시절, 시내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초라하나 높디높았던 언덕 길을 힘든 기색도 없이 뚝뚝뚝 걸었던 그 하염없던 모녀의 걸음과, 위태위태한 낡은 판잣집들이 뻐뻐했던 그 동네의 좁다란 골목에 울퉁불퉁 까칠한 콘크리트 벽으로부터 날 지켜주던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과,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어머니의 넓은 갈색 통굽 스레빠. 그리고 그 때의 젊고 아름다웠던 내 어머니의 얼굴이 마음 한 귀퉁이에서 희미하게 재생되어진다.

그 어떤 클릭으로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살 수도 없는 그 때의 내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아날로그들이.



INJE  
인제문화상

■ 수필가작

# 동행 (同行)의 흔적

장인남 (유아교육·05)

손 끝이 시리다. 전율을 느꼈다. 습관처럼 버스를 타고, 습관처럼 창밖을 응시한다. 여느 날처럼 창밖을 바라보는 데 그날이 나를 엄습했다. 또 다른 버스 안에서 느끼는, 몇 개월 전의 내가 보인다. 내 옆에는 어린 사촌동생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 시선조차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토해낸다.

나는 수분이 빠져나간 불가사리처럼 가엾게 놓여있다. '처음'이라는 두 글자로는 설렘이나 떨림을 다 표현해내기에 부족하다. 나는 처음의 떨림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 화장(火葬)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내가 너무나 아끼던 사람. 화장터는 '부재'를 실감하지 못한 나에게, 내 몸속에 남은 눈물까지 다 쏟아내게 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인지, 화장(火葬)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인지 헛갈렸다.

그 분을 보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생각했다. 가족이나 친구는 우리네 인생이 외롭다가 아님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극히 혼자임이 분명하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버스도, 표면적으로는 동행이지만 각자 자신의 정류장에 내리지 않던가.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지만 동행(同行)의 흔적만은 여전히 남아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일부라도 떼어주고 싶은 마음, 그를 향한 눈물. 동행의 흔적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울다가도 3일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나 역시 그러하다. 내 자신에게 환멸 아닌 환멸을 느낀다.

'죽음'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을 알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워했을 순간에, 나는 다른 곳에서 즐거워하며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내가 그때 전화 한통이라도 해서 그 자동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그 장소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하다가, 몇 개월 전의 일임을 깨닫는다. 점철된 기억들이, 과거가 아닌 현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과거의 편린(片鱗)들과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불안한 내 눈빛도 선명히 재현된다.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일상 속에서 혼자가 되면, 늘 내면 깊숙한 곳에 침잠한 나와 조우에서

이를 거부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간의 범주는 독립된 것도, 완성된 불변의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비가 가뭄을 끝내주는 것처럼, 내가 과거와의 동행을 허락할 때 온전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분 좋은 동행을 상상한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는 다시 속도를 낸다. 창문을 여는 순간 구름이 내게 안기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어이구,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나는 창밖에서 눈을 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젊은 사람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상적인 모습이다. 4살쯤 되는 아이와 같이 있는 아주머니도 보인다. 할머니는 자리를 양보한 아주머니의 짐을 자신의 발밑에 옮기셨다. 그리고 4살쯤 되는 그 아이를 당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옆에는 방금까지 서있던 3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앉아있다. 자리가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정거장이 지나 자리가 생겨도 그대로다. 그들에게는 한 자리에 한 명씩 앉는다는 버스 안에서의 무언의 약속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진정, 동행(同行)은 이런 것이 아닐까.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아주머니, 발 디딜 곳이 없어 힘들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짐을 발밑에 가져다 놓는 배려, 한 자리에 3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며 쌓는 친밀감과 우정. 나는 왜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행복한 동행을 허락하지 않은 이방인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밀려오는 서글픔을 숨기지 못한다. 스스로 가슴에 생채기를 내며 고통스러워했던 날들이 그저 꿈만 같다.

언젠가 나는 제각기 다른 정류장에서 내렸지만 넉넉한 마음을 나눴던 그들을 회상하며 창밖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아픈 기억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과거와 따뜻한 악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차가움으로 얼룩졌던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溫氣)가 전해졌다.

나는 온기(溫氣)에 물들었다.

아직은 분홍빛에 가깝지만 그 따뜻함에 시간이 더해지면, 머지않아 붉은 빛을 낼 수 있으리라. 열여든 창문 틈으로 시린 바람이 분다. 나는 저항이라도 하듯, 민들레 꽃씨처럼 느리게 기지개를 편다.

■ 수필 당선 수상소감

## “즐거운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김미주 (국어국문·06)



글을 쓰는 것은 참 즐거운 여행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사소하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올지 도무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당선 소식을 접할 당시, 저는 낯은 현책들이 가득한 보수동의 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세월의 먼지만 가득 쌓여버린 그 많은 책들 사이를 조금은 질린 마음으로 걸어간 나는, 당선 소식을 듣는 순간 그만 어안이 병병해져

버렸습니다.

이번 수필은 제가 늘 마음속으로만 문득 문득 그리워하던, 종잡을 수 없이 많은 생각의 조각들을 '글'로서 풀어 놓을 수 있었던 아주 오래간만의 먼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필이 어머니와 나만이 아는 그 때 그 시절의 추억들을 한 장의 커다란 사진을 찍어놓듯,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한 편의 글로 남겨지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어설픈게 비꼬여진 저의 미숙한 글을 '당선'이라는 큰 선물로 안겨지게 되어 솔직히 부끄럽고 얼떨떨한 것도 사실입니다. 읽어 보면 볼수록, 주제도 조금씩 빛나가고, 문장의 모양새도 여기저기 못나기만 하니, 상을 받는 것이 괜스레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엔 아날로그이기에 의미가 있고, 아날로그이기에 누군가에게 진정한 명품이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존재 한다고...

한 편의 글을 쓰고,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일 역시, 그 어떤 전자 시스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이 있기에 만들어지는 일이니까요.

■ 수필 심사평

## 수필, 감동을 얻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차달숙 (수필가/부산문인협회 사무국장)

심사평에 앞서 응모자 모두가 긍지를 갖고 쓴 글들이고, 심혈의 역작이라고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당선작과 가작, 그리고 탈락 작품을 구별할 필요성을 잃었다. 누구누구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갈라놓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그러나 입선작을 선정할 책무가 주어졌기에 응모자가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의식과 사람냄새, 그리고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문장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하였다.

수필문학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문학이다. 자신의 체험한 日常에서 사물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냄새, 느낌, 정황 등의 솔직한 묘사에 수필의 매력이 있다. 그러므로 수필을 쓸 때 필자는 사물을 따뜻하게 지켜 볼 수 있는 시선과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문장력을 갖추어야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당선작으로 뽑은 「낯은 갈색 통굽 스레빠의 아날로그」는 군더더기 글이 떠엄 떠엄 보여서 흠이지만 대체로 구성도 좋고 문장도 매끄러워 나무랄 데 없이 인간 본래의 심성을 잘 그려놓았다. 주제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요즘같이 인정이 메마른 토양에서는 꼭 읽어 볼만한 작품이다.

가작으로 뽑힌 「동행의 흔적-온기에 물들다」는 본문 내용 중 동행의 흔적에 대해 언급이 없어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만 서론과 결론이 잘되어 있다. 앞으로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가작 작품으로 뽑았다.

수필의 생명은 감동이다. 감동 없는 글은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 체험과 세심한 사물의 관조를 통해 진한 감동을 얻어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응모자 여러분들의 훌륭한 창작 정신과 열정적 문학태도에 경의를 표하며 큰 박수를 보낸다.

